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FRICA

아프리카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Angola FPSO 건설 프로젝트
2. 케냐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개시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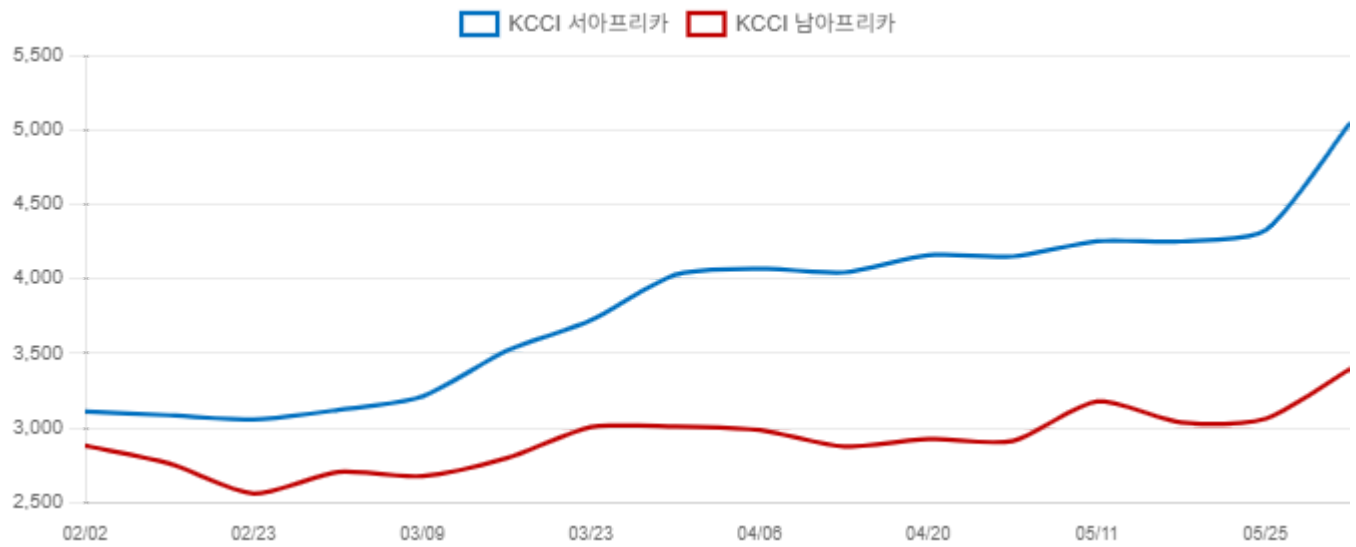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자원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겨냥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주목받았다. 앙골라는 중국 조선소와 협력하여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FPSO 건설에 착수했으며, 케냐는 아프리카 최초로 상업 규모의 지속 가능항유(SAF) 정제소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았던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연료 생산이 동시에 강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앙골라의 FPSO 프로젝트는 2029년 첫 원유 생산을 목표로 하여,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이 여전히 아프리카 주요 산유국의 핵심 과제를 시사한다. 반면 케냐의 SAF 정제소 건설은 항공 연료 수입 대체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프리카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두 사례 모두 외국 자본과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향후 아프리카 내 에너지·인프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서아프리카	5,045 \$/FEU	06/22	+4.1%	+16.6%
KCCI 남아프리카	3,394 \$/FEU	06/22	+4.0%	+10.9%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6/22

Angola FPSO 건설 프로젝트

중국 조선소 CIMC Raffles가 앙골라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FPSO 건설 계약을 수주, 2029년 첫 원유 생산 목표로 추진됨.

중국 해양플랜트 전문 조선소 CIMC Raffles는 앙골라 광구 개발사 Azule Energy(Eni-BP 합작)와 'Greater PAJ' 프로젝트용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 설비) EPCIC(설계·조달·건조·예인·설치·시운전 일괄) 계약을 체결함. 동 FPSO는 일산 9만 5천 배럴 규모이며, 5개 해상 유전(Pala, Astraea, Juno, Urano, Dione)에서 생산된 원유를 처리·저장·하역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번 프로젝트는 총 51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로, Azule Energy가 지난주 최종투자결정(FID)을 승인함. 첫 원유는 2029년 상반기 생산 예정이며, 15년 이상 장기 생산이 전망됨. CIMC Raffles는 본 계약이 국제석유메이저로부터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자평함.

해당 프로젝트는 앙골라의 석유 생산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핵심 동력으로 평가됨. 앙골라는 최근 노후 유전 생산 감소로 원유 생산량이 하락했으나, 대규모 심해 개발 투자로 생산 안정화를 모색 중임. FPSO 건조 수주로 중국 해양플랜트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재확인됨.

한국 조선·해양플랜트 업계는 이번 계약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으로 작용함. 한국은 과거 앙골라 FPSO 프로젝트(예: Kaombo 등)에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최근 가격 경쟁과 일정 관리에서 중국에 밀리는 양상임. 이에 한국 기업들은 차별화 전략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

- CIMC Raffles가 앙골라 'Greater PAJ' 프로젝트용 FPSO EPCIC 계약 체결
- FPSO 생산능력 일산 9만 5천 배럴, 51억 달러 규모 투자
- 첫 원유 생산 2029년 상반기 예정, 5개 해상 유전 통합 개발
- Azule Energy는 Eni(이탈리아)와 BP(영국)의 합작사
- 중국 조선소가 대형 해양플랜트 수주로 글로벌 입지 강화

전망

앙골라 FPSO 프로젝트는 2029년 생산 목표에 따라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해양플랜트 특성상 엔지니어링·조달·건조 리스크가 상존함. CIMC Raffles의 성공적 수행 여부가 향후 중국 조선소의 해양플랜트 수주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시사점

화주 — 앙골라 프로젝트 생산 개시(2029년) 전까지 원유 공급 변동성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앙골라산 원유 수급 안정에 기여할 전망.

선사·항만 — FPSO가 완공되어 앙골라 해상 유전에 설치되면 원유 해상 운송 및 하역 수요가 확대되어 주변 항만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포워드 — FPSO 건조를 위한 자재·장비의 국제 해상 운송 물량이 발생하나, 프로젝트 장기화로 수요 시점을 면밀히 주시해야 함.

항만·선사(한국) — 한국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는 이번 수주 실패를 계기로 고부가가치·차별화 기술로 경쟁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Splash247, CIMC Raffles to build FPSO for Angola project (검색일: 2026-06-26)

케냐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개시

케냐가 아프리카 최초의 상업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정제소를 건설하여 항공 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SAF 생산을 선도할 전망이다.

케냐항공과 범아프리카 정유사 루비스 에너지 케냐는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연간 3만2000톤 규모의 SAF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프로젝트 투자액은 6000만~7000만 유로로 추정되며,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함.

해당 시설은 아프리카에서 100% SAF 전용 정제소로서는 최초이며, 지금까지 아프리카 SAF 시장은 수입과 시범 프로젝트에 의존해 왔음. 조모 케냐타 공항은 아프리카 최대 허브 중 하나로 입지적 이점을 활용함.

케냐의 SAF 생산은 항공유 수입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프리카 항공업계는 현재 상업 규모의 SAF 정제소 부재로 인해 대부분의 항공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연간 SAF 생산 목표: 32,000톤
- 투자 규모: 6000만~7000만 유로
- 가동 예정 시기: 2028년
- 아프리카 최초의 100% SAF 전용 정제소
-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위치

전망

2028년 가동 후 케냐는 아프리카 SAF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초기 생산량이 아프리카 전체 항공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나, 추가 투자와 확장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사점

항만·선사 — SAF 생산 개시는 항공-해운 물류 체인에서 탈탄소 연료 공급망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화주 — 화물 항공 운송 시 탄소 배출 감축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 옵션이 확보됨.

포워드 — 아프리카 내 SAF 가용성 증가로 친환경 항공 화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